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 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뉴스특보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바른말 고운말	1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0 KBC 생활뉴스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12		00 KBS 뉴스 12	1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45 닥터 365 55 화첩기행(재)
1	50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5 VJ특공대	20 아하! 동물탐험대(재)	55 날씨와 생활
2		00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55 세계인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활의 발견(재)	05 내꺼야 폴록 30 동물가족 체험기 와일드 패밀리(재)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15 TV, 책을 보다(재) 55 튼튼 생활체조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10 바다의 금동이 40 통일 전망대	00 SBS 뉴스 10 잘먹고 잘 사는 법 식사 하셨어요?(재)
4	1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꿈의라이브 프리즘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터닝 메카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 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 극장〈단짝〉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남도의 보물 100선
9	3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20 세상발견 유레카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긴급좌담 메르스 어떻게 끝낼 것인가	00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	00 월화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상류사회〉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12	10 나는 몸신이다(재)	30 독립영화관 〈못〉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이욱정 PD요리인류 키친	10 MBC 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40 성공 인생후반전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07:15 곤(재)
07:30 출동! 슈퍼윙스(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두다다쿵(재)
08:35 WHO-위인극장
08:50 곰디와 친구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09:2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09:35 이얍! 스페이스 정글
09:40 토크쇼 부모 〈놀라운 데이터〉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3:05 지식채널e
13:10 글로벌 가족 정착기 〈한국에 산다〉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꼬마 철학자 휴고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4:15 피터 래빗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4:45 미앤마이로봇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5:15 내 친구 아서
15:30 시계마을 티키톡!
15:45 미술 탐험대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6:45 곰디와 친구들(재)
17:00 WHO-위인극장(재)
1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지파이터스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아이스란드, 생명이 움트는 대지〉
21:30 한국기행 〈호남명산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생명, 40억 년의 비밀〉
22:45 리얼극장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기행〉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Ⅰ-알짜개념〉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1:40 〃 〈문학-알짜개념〉
02:30 〃 〈미적분Ⅱ〉
03:20 〃 〈수학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Ⅱ〉
05:00 뉴탐스런 〈물리Ⅰ〉
06:00 〃 〈생명과학Ⅰ〉
06:40 〃 〈동아시아사〉
07:30 〃 〈윤리와 사상〉
08:20 2016 수능개념 〈윤혜정의 국어b〉
09:10 〃 〈심주석의 수학Ⅰ〉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a〉
11:00 〃 〈수학Ⅰ〉
12:10 올림포스 〈국어Ⅰ-알짜개념〉
13:05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b〉
14:5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
15:40 〃 〈미적분Ⅱ〉
16:30 〃 〈수학Ⅰ〉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Ⅱ〉
18:10 2016 N제 〈국어A〉
19:20 〃 〈영어〉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20:50 2016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A형〉
21:50 〃 〈문학A형〉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EBS플러스2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7:3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08:0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수학1(상)〉
10:30 〃 〈역사2〉
11:10 〃 〈국어③④〉
11:50 〃 〈수학2(상)〉
13:10 등업신공 〈수학1(하)〉
13:50 중학 중·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과학1-1〉
14:30 등업신공 〈수학2(하)〉
15:20 만점왕 〈수학 3-1〉
15:50 〃 〈수학4-1〉
16:20 〃 〈수학5-1〉
16:50 〃 〈수학6-1〉
17:20 초등과학 개념잡기
18:00 TV 중학 〈국어⑤⑥〉
18:40 〃 〈수학3(상)〉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20:00 EBS 기획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중학 중·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과학2-1〉
22:40 등업신공 〈수학 3(하)〉
23:20 필독 〈사회1〉
24:00 왕기초 중학 〈수학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6일(음 5월 1일 癸亥)

子 48년생 가상이 실제의 상황으로 전개 되리라. 60년생 기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괜찮은 편이다. 72년생 요긴한 것이니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84년생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후일의 안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행운의 숫자 : 05, 50

丑 49년생 표현 방법에 따라서 설득력의 강도 차이가 크다. 61년생 실행 하더라도 정밀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73년생 조금만 더 진력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85년생 상대는 조건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운의 숫자 : 41, 17

寅 38년생 단일한 목적 아래 모여드는 이들이 있다. 50년생 한 숨을 쉴 일이 생기겠다. 62년생 빨리 버리는 것이 옳다. 74년생 무던하게 대하는 것도 괜찮다. 86년생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8, 70

卯 39년생 깊은 사려가 깃들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51년생 수단이나 방법에 흠결이 보인다. 63년생 원인은 따로 있느니라. 75년생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매듭지어야만 한다. 87년생 수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5, 94

辰 40년생 판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52년생 인연으로 연결 될 수도 있는 호기이니라. 64년생 기왕이면 겉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6년생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리라. 행운의 숫자 : 78, 61

巳 41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하자. 53년생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65년생 길흉이 교차하면서 부침이 심할 수도 있다. 77년생 강력한 기세로 일정하게 되풀이 되다가 사라지리라. 행운의 숫자 : 40, 96

午 42년생 전방위적인 확산일로에 놓여 있다. 54년생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로다. 66년생 참고 버티다 보면 자연히 풀리게 되어 있느니라. 78년생 충분히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62, 04

未 43년생 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이니 모두 챙겨 두도록 하라. 55년생 주변을 살피다 보면 적절한 정답을 찾게 되리라. 67년생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79년생 결코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2, 63

申 44년생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56년생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서 애를 먹겠다. 68년생 작은 징후라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의 주시하라. 80년생 첫 번째의 건이 가장 실속 있고 유력시 된다. 행운의 숫자 : 69, 93

酉 45년생 다소의 마찰이 예상되니 우회로를 모색하자. 57년생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 69년생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판나겠다. 81년생 전체의 특색을 파악하고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5, 77

戌 46년생 용도를 달리한다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58년생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느니라. 70년생 다수인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리라. 82년생 도약 하고 있는 단계이니 조금만 더 힘써 봐라. 행운의 숫자 : 90, 48

亥 47년생 작은 노력에도 쉽게 이루어지는 행운이 따른다. 59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용감하게 응대해야 하느니라. 71년생 어떠한 구도가 되더라고 소신을 지켜야 하느니라. 83년생 징후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운의 숫자 : 49, 8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잠시 안녕 "건강하게 무대로 돌아올게요"

광주출신 유노윤호, 입대 전 마지막 콘서트
메르스 확산 우려 속 해외 팬 원정 관람
일본 전국 160개 극장서 생중계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나는 게 제 원칙입니다. 제 인생의 여러 추억이 있는데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동방신기의 유노윤호(29·사진)는 14일 입대 전 마지막 공연에서 "웃으면서 떠나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며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다.

7월 21일 입대를 앞둔 그는 이날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TVXQ! 스페셜 라이브 투어-T1스토리-&...!'에서 1만2000 관객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군대를 간다고 말한 그는 "오늘 공연을 하며 세 차례 정도 울컥했다"며 "동방신기로 데뷔해 창민이와 여러분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녀석(최강창민)과 많이 싸우고 웃었다. 무대에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외로워도 창민이가 손잡아주고 있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 유노윤호는 데뷔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는 "할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라고 외쳤다.

2년간 동방신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최강창민도 "건강하게 이 무대로 돌아오고 싶다. 팬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더라도 동방신기가 삶의 활력소이자 비타민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서트는 지난해 12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연의 앙코르 무대지만, 이번 투어의 대미이자 유노윤호의 입대로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 속에서도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원정 관람 온 팬들은 마스크를 쓴 채 엄청난 함성을 쏟아냈다. 일부 팬들은 마스크에 '창민', '윤호'라고 멤버들의 이름을 써서 응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동방신기는 이날 시간 여행을 주제로 3시간 반 동안 그간의 대표곡을 아우르며 지난 시간을 추억했다. 1집 타이틀곡 '믿어요'와 2집 타이틀곡 '라이징 선'(Rising Sun)을 비롯해 '오-정.반.합', '주문-미로틱', '왜', '캐치 미'(Catch Me), '섬씽'(Something) 등의 히트곡을 비롯해 앨범 수록곡, 라이브 밴드 연주에 맞춘 메들리 무대까지 총 28곡을 쉼없이 펼쳐보였다.

최강창민은 7집에 수록된 솔로곡 '헤븐스 데이'(Heaven's Day)를 노래한 뒤 엑소의 시우민, 백현, 첸과 함께 노라조의 '고등어'를 부르며 협업 무대를 꾸몄다. 특히 신곡 무대는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두 멤버는 '스타라이트'(Starlight)를 처음 선보였고, 유노윤호는 펑키 하우스 장르의 댄스곡인 솔로 신곡 '샴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공연은 동방신기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SM 퍼포먼스 디렉터 심재원이 총 연출을 맡았다. 가로 16m, 세로 8.5m의 대형 LED 스크린과 4개의 중계 스크린, 계단형 리프트 등의 무대 장치를 비롯해 공연장 천장에 프로젝터 빔을 쏘아 입체감을 살렸다. 또 1만2000 관객이 팔에 낀 'LED 컨트롤 팔찌'는 노래에 따라 여러 색깔로 일제히 변해 장관을 연출했다. 이 팔찌는 공연 연출팀이 곡에 따라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등으로 변화시켰다.

13~14일 이틀간 총 2만4000 관객을 모은 이번 공연은 국내 SM타운 코엑스 아티움과 CGV 4개 극장을 비롯해 일본 전국 160개 극장에서 생중계됐다.

이로써 동방신기는 서울을 비롯해 대만 타이베이, 중국 베이징 등 국내외 6개 도시에서 10회 공연으로 9만7000 관객을 동원하며 이번 투어를 마무리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2~4월 5대 돔 투어를 열어 총 16회 공연으로 관객 75만 명을 모았다.

"거침없는 블랙코미디 쿨~하게 봐주세요"

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 지누 役 류승범
3년간 파리서 '도 닦는 것' 처럼 생활
한국 소식 끊고 조용하고 자유로운 삶 선택

"프랑스 파리에 살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 지난 3년이 길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식습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고나 할까요."

배우 류승범(35·사진)이 영화 '베를린' 이후 2년 만에 '나의 절친 악당들'로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15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영락없는 보헤미안(속세의 관습을 무시하고 방랑하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예술가)의 모습이었다.

3년 전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거나 버리고 트렁크 가방 두 개만 꾸려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

류승범은 "빛나는 유명 인사의 삶보다는 조용한 제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유명하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공항만 도착하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프랑스에서는 공항에 내리면 자유롭죠.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각이나 행동도 바뀌고요."

"2년 동안 채식을 해서 기름기가 많이 빠졌어요. 새로운 생활 속에서 거품이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제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타인의 시선과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이요. 저는 항상 노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는 자신의 현재 삶이 계획적이거나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고, 치기 어린 장난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차라리 하루하루가 '생존'과 '도를 닦는 것'에 가깝다고 했다.

"영어를 3년간 공부했어요.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는 평생 해야죠. 생활은 완전 서바이벌(생존)이에요. 집도 없는 신세지만, 돈 걱정은 잘 안 해요. 일단 안 쓰고요.(웃음) 지금부터는 정말 안 써야 해요. 돈을 벌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는 현재 가진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인 거에요. 그래도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녜요. 아직 저 하나 지키기에는 괜찮아요."

"해외에 살면서 한국에 대한 소식은 완벽하게 접었어요. 여기 한발 담그고 저기를 들여다보면 너무 고독하기 때문이죠. 영화도 한국영화는 안 봐요. 현지 유럽영화는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요. 하루하루를 장난치지 않고 심각하게 살고 있어요. 한국식 표현으로 도를 닦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류승범은 이번 영화에서 낡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와 유쾌함을 잃지 않는 사랑스러운 괴짜 '지누' 역을 연기했다.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영화가 현실과 허구를 잘 버무린 거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독특하면서 오랜만에 좋은 에너지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들이 다양해지는 것 같지만, 다양하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이런 현실에 필요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는 또 이번 영화가 거침없고 시원한 블랙코미디 적인 영화라며, 관객들이 '쿨' 하게 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영화는 '쿨' 하다는 정서로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낯설죠. 판단하면 벌써 이성에 가까워지면서 '쿨함'에서 멀어진 거죠. 이번 영화는 그냥 생각이나 판단 없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간 연기관과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졌다.

"은퇴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시키는 거죠. 앞으로는 제게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하려고요. 영화라는 게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제가 죽어도 누군가 보겠죠. 이걸 깨닫게 되니 책임감이 생기고 진지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류승범이 인터뷰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것은 '자유'와 '다양함'이었다.

"지금 삶이 평안하고 많이 행복해요. 그전에 저는 복잡한 사람이었던 거 같아요. 자유로운 제 실체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영화계든 우리 사회든 좀 더 다양해져서 숨 쉬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면 좋겠어요." /연합뉴스